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교회세우기 세미나
공개강좌

일시/장소 : 2017.3.6. 남서울교회

강사 : 김형국 목사

(연세대 B.A, Trinity 복음주의신학교 M.Div, Ph.D
나들목교회, 하나복DNA네트워크 대표목사)

하나님 나라 복음 DNA 공개 강좌

일시 및 장소: 2017/3/6, 남서울교회

Orientation

강의 1: 위기의 한국 교회, 그 원인과 대안

강의 2: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교회 개척과 갱신

강의 3: 하나님 나라 복음 DNA 사역의 출발점

<읽기자료>

강의 1: 위기의 한국 교회, 그 원인과 대안

서론: 오래된 위기

- 대학 시절 (1980년대)
- 1999년 지식인들-대중매체
- 2007년의 사건들

1. 위기의 한국교회, 그 원인

가) 신학과 신앙(목회)의 분리

- 신학교와 학회/논문에 갇힌 신학
- 성경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설교자
- 결과: 반지성주의 (혹은 지성주의), 혼합주의 (문화, 사회의 영향),

--> 영적 실____와 능____ 상실

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분리

- 예수에 대한 피상적 믿음
- 하나님 나라 신학의 실종
-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
- 복음에 대한 피상적 이해
-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대한 혼란

- 현재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심 가치
 - 1) 기복주의
 - 2) 이원론적 영성
 - 3) 개인주의적 신앙
 - 4) 교인중심
 - 5) 현세기복적 예배

다) 목회자의 역할 혼돈과 상실

- 중세교회로의 퇴행

-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2. 위기의 한국교회, 그 대안

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회복

-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

한국교회의 문제점	나들목/하나복의 대안	더 근본적인 원인
기복주의		예수 그리스도 → 그 분이 가르친 _____의 복음 → _____예배의 실종
이원론적인 영성		
개인주의적 신앙		
교인중심		
현세기복적 예배		

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회복의 결과

- 네 가지 중심 가치의 선순환적 관계와 총체적 결과

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자의 회복

-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가 가장 먼저 떨어져야 할 대상

-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은 사역자(성도와 목회자)의 중요성(엡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목양자인가 직업인인가?

- 전문사역자가 잘해야 할 네 가지

1)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 회심 사역

2)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초기 양육하기 - 초기 양육 사역

3) 하나님 나라 제자 세우기 - 제자 훈련 사역

4)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 - 공동체 사역

결론: 목회자, 원인 제공자이며, 희생자. 그러나 역시 문제 해결자

강의 2: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교회 개척과 갱신

서론: 갱신 사역과 개척 사역의 시너지

1. Case 1: 개척 성장 사례 - 나들목교회 (2001~)

가) 하.나.복.D.N.A. I - 찾는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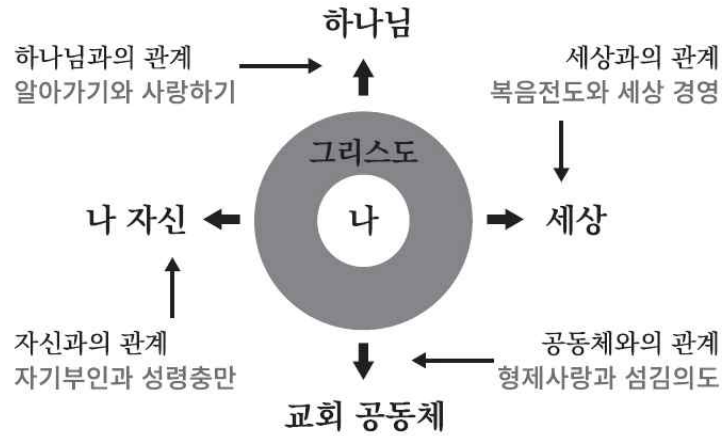
- 전도 패러다임의 변환 -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도 (vs. 대면식 복음전도)
- 찾는이와 함께 하는 예배
- 복음 전도 사역의 중요성
-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포이에마)
- 꾸준한 회심자와 회심자에 의한 전도와 회심자 정착률

나) 하.나.복.D.N.A. II - 진실한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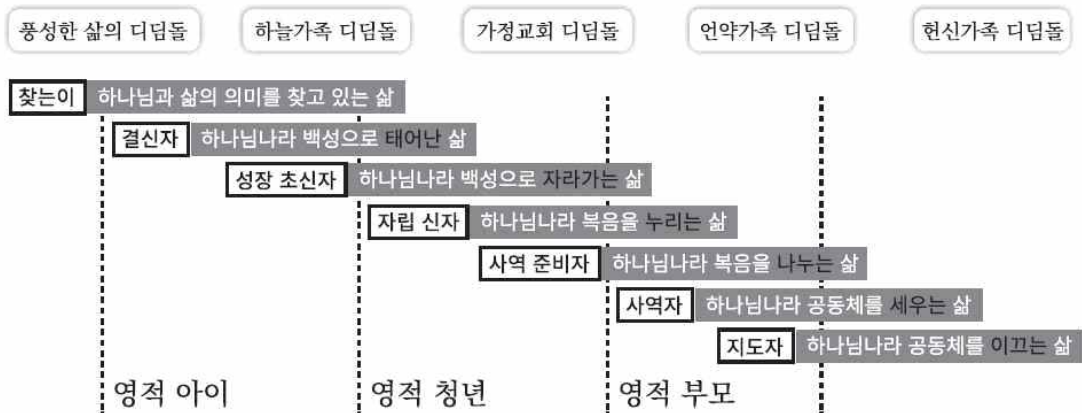
- 진실한 (authentic) 공동체
- 공동체의 삼중구조
- 사람을 키우며 재생산하는 공동체
-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목특소)

다) 하나.복.D.N.A. III - 균형있는 성장

- 균형있는 성장



- 영적 성장단계



- 제자훈련, 실패한 것이 아닌가?

	기존의 제자훈련	풍성한 삶 시리즈
신학	복음	
방법론	목회자에 의한 교육 (LTC)	
영적 형성	리더모임을 통한 유지	
교회론적 목적	성도 관리	

라) 하.나.복.D.N.A. IV - 안팎의 변혁

- 찾는이가 변혁자로 성장하여 맺는 열매
- 보문 커뮤니티
- 함께 살기 프로젝트
- 꿈꾸는 성도들, 꿈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 네트워크 교회

바) 하.나.복.D.N.A. IV - 소망하는 예배

- 세 가지 예배 (일상, 가정교회, 전체 집회)
- 소망하는 예배의 특징
 - 1) 이 세상의 현실
 - 2) 하나님의 현재의 회복 사역과 나/우리의 몫
 - 3)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대망

2. Case 2: 갱신 사례

가) 은천교회 (홍순설 목사 담임)

나) 넘치는교회 (이창호 목사 담임)

다) 그 밖의 시도 중인 교회들

3. Case 3: 개척 사례

가) 조이플교회 (김형운 목사 담임)

나) 다양한 시도들

라) 가정교회 중심의 개척 사례

결론: 싹이 나고 있다!

강의 3: 하나님 나라 복음 DNA 사역의 출발점

서론: 목회자의 중요성

1. 하나복 네트워크의 전략

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 영역

- I) Theology 신학: 하나님나라 복음
- ii)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에 대한 그림
- iii) Organic Community: 성경적인 유기적인 공동체
- iv) System Spirituality: 철학과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영성
- v) Preaching and Teaching: 설교와 가르침

나) 하나복 네트워크 전략과 기본적 프로그램

하나님나라 복음 전도와 회심 사역 - 하나님나라 복음의 제자도 - 하나님나라 복음의 공동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유기체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다) 각각의 상황에 하나복DNA 사역, 지원과 연대

2. 하나복 네트워크와 동역 연대를 위한 첫걸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자가 되자!

가) 전도 신학을 확립하라

1) 두 가지 전도 패러다임

생활방식으로서의 전도 vs. 대면식 복음 전도 (기술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전도로 전략하는 경우)

2) 각각의 장단점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도방식

3)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 강의 듣기 (60분 x 3회)

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

1) 친구가 되라

고립된 그리스도 (Out of Saltshaker)

2) Pre-evangelism - 장애물을 제거하라

세 가지 장애물

변증의 중요성: www.imseeker.org

3) Evangelism -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라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회심의 신비

다섯 가지 반응

Rejoice

Recommit

Receive

Research

Reject

4) Post-evangelism - 함께 걸으며 섬기라

Research의 중요성

초기 양육의 중요성 - “풍성한 삶의 첫걸음” www.hanabokdna.org

5) 끊임없이 시도하라

훈련 없이 어떤 성장도 없다

본질적 사명으로 받아들여 좌절하지 말라

결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교회와 사역자들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본강좌를 위한 준비>>

필수 제출 과제

1. “청년아 때가 왔다”와 “교회를 꿈꾼다”를 읽고 서평을 제출하십시오.
2. www.imseeker.org 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 인도자반” 강의안 파일을 다운받아, 3번의 강의를 듣고 강의안에 필기하여 본 강좌 때 제출하십시오.
3.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익히고, 이를 가지고 실제로 찾는이에게 1회 이상 복음을 전하고 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추천 내용

1.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풍습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초기 양육하십시오.
2. 읽기자료 -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넘어서서”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정독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신학교에서 배운 책들과 교과 내용을 정돈해보십시오.

[2017년 하나복 세미나 일정]

6월- 본강좌 (6/26-28, 월-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나누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공개강좌를 마치시고 사전 과제를 마치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1월- 심화강좌 (11/13-16, 월-목)

하나복DNA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본강좌를 수료하고 사전 과제를 마치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1)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의 핵심 요소들
- 2) 코어멤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 관계맺기, 하나복으로 양육하기
- 3) 코어그룹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1) 예배하기, 비전 공유하기
- 4) 코어그룹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2) 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
- 5) 코어그룹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3) 공동체 운영의 실제
- 6) 코어그룹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4) 성도자발성 - 역할과 책임의 위임과 지원
- 7) 복음의 총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1) : 전도 -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전도전략과 그 실제
- 8) 복음의 총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2) : 변혁적 공동체의 변혁적 사역
- 9)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 MOSAIC 개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넘어서서...

-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

김형국 (나들목교회 대표목사, 신학박사)

들어가며... 위기의 한국교회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제 늑대 소년의 외침처럼 더 이상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많은 분석과 비평이 있었고, 모두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 아래에는 심각한 신학과 신앙적 오류가 있다. 그것은 예수가 가르치신 중심 사상의 분리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다고 할까?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예수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충절을 바친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인들은 사랑, 십자가, 구원, 복음, 제자도, 선교, 헌신, 섬김, 예배 등이라고 대답한다. 사복음서를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예수의 중심 사상을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성도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서 기가 막힌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임하는 평안 내지는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보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꾸준히 선포하여 왔으며, 개인의 회개와 회심,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강조 또한 빠지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갖는 강점이지만, 예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에 대한 강조는, 복음의 총체적 이해와 종말론적 역사 이해를 놓치게 된다. 그리하여 보수 교회는 기껏해야 개인 경건주의에 충실하고 교회 봉사에 헌신한 성도 이상을 배출해내지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특히 정의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대다수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민감하고,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단지 정의를 위한 희생 정도로 희석될 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기껏해야 선량한 시민이나 건전한 시민운동 단체 정도 이상이 되기 힘들다.

보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지만,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 진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지만, 회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빈약하다. 후자는 예수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로 강등시킴으로 예수에 대한 인격적 헌신을 약화시키니 교인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고,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전자는 사회적 역사적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역시 교회와 교인 수가 줄어든다. 물론 보수 기독교의 경우, 여전히 메가처치 중심으로 교인들이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인 힘과 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보수 교회 전반은 급박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진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한국 교회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국 교회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구 교회와 신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예수와 바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지속되어 왔다. 예수가 가르친 유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범세계적(또는 헬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복음으로 전했다는

생각, 바울은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주장 등이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의 이원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은 서구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통합적인 교회가 아닌, 때로 개인주의적 신앙만을 강조하는 교회로, 때로는 제국주의에 이용당하는 집단으로, 또 때로는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경도된 사회 운동 단체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짚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한계이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극복하고 승화하여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이 글은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요약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에 있다.

1. 예수와 바울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맥락

비록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예수께서 처음 쓰신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 등의 개념은 구약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창 14:19, 22; 대상 29:12; 단 2:47; 비교 마 11:26)이시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출 15:18; 민 23:21; 신 33:5; 사 43:15)이실 뿐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복종해야 하는 만민의 주인이시다(왕하 19:15; 사 6:5; 렘 46:18; 시 22:28; 29:10; 99:1-4).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만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도 주인이시다(사 24:23; 33:22; 52:7; 습 3:15; 숙 14:9하). 구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한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신정국가를 통해서 당신을 열방에 드러내려 하셨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을 돌이키시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 유다에 이른다. 이러한 심판과 바빌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 또는 “다윗의 자손” “여호와와 종”을 간절히 기다린다(사 9:6-7; 11:1-10; 53). 하나님은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요엘 2; 사 13-14; 습 1:16 etc), 또는 “그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며,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과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만물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다. 구약은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며 마무리된다.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주장하신 예수

예수는 바로 구약의 이러한 대망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다.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가 새롭게 창조한 사상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였다. 예수는 반복적으로 자신에게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한다(눅 4:21[사 61:1-2]; 마 11:2-6 [사 35:4-6]). 물론 구약의 예언은 모두 주의 날과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나는 심판, 회복과 치유에 대한 것이었다. 복음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곳 마다 귀신을 내어쫓으시고(막 1:21-28; 9:19-29),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증언하고(막 1:29-34; 2:1-12; 3:1-6; 5:21-43; 6:53-56), 더 나아가 자연 현상을 지배하시기 까지 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4:35-41; 6:45-52),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즉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마 12:29; 눅 17:20-21).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지를 끊임없이 가르친다. 예수의 가르침을 다섯 묶음으로 모아 편집한 마태복음의 경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마 5-7장),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의 삶과 사역 (마 10장) 하나님 나라 비유 모음 (마 13장),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 삶 (마 18장), 그리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 (마 23-25장)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천국”이라는 한국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놓칠 수 있지만, 사복음서가 예수의 끊임없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나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다. 사역과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는 다양한 죄인들을 영접하고(막 2:13-17; 눅 5:27이하; 7:34; 15:1; 19:1이하)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는 열 두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운다(막 13:13-19; 마 10:1-4; 눅 6:12-18). 실제로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당시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불가피함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가르친다. 공관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비록 각각의 강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채택한 이 세 번의 예고(8:31-38; 9:30-32; 10:32-34)를 마태(16:21-28; 17:22-23; 20:17-19)와 누가(9:22-27; 9:43-45; 18:31-34)도 받아들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그 분량의 삼분의 일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것 역시, 복음서는 단지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고 부활하였는지에 대한 증언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예수는 구약으로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가르침, 사역, 제자 공동체, 자신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하였다.

다) 자신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마 25:41; 마 13:36-43; 눅 13:28-29). 이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 때는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약적인 비전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전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마 24:29-30; 25:31-46). 예수는 이러한 완성이 있기 전에 고통스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마 24:3-14, 15-22)도 하셨지만, 이 속에서 인내로 기다리며 그 주인에게 충성된 자들을 결국 찾아 오셔서 그들에게 상 주시고, 새로운 세계, 완전히 회복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 또한 하셨다 (마 24:45-51; 25:1-13, 14-30). 그러므로 구약이 기다림으로 끝난 것과 같이, 신약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다 (계 22:20; 고전 16:22).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각각 개별적으로도 서술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가르침인 씨앗 비유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마 13장).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 현재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으며, 어느 날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삼중의 시제가 이를 보여준다. 과거-현재-미래의

시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다 사용된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부른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하였고,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 자라가고 있으며, 그가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구약적인 사고, 즉 주의 날이 임하면, “이 세대”(this age)는 끝나고 “오는 세대”(age to come)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직선적인 역사관과 근본적인 사상은 공유하나, 두 시대가 겹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다르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임하였지만, “이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고, 현재는 이미 임한 “오는 세대”와 결국 끝날 “이 세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다.

2. 사도들이 가르치고 살아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상이 예수님에게 중심 사상이었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주제였던 사실(행 1:3, 6)과, 빌립 (행 8:12)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중심(행 14:22; 19:8; 20:25; 28:23, 31)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의 중심 사상과 초대 교회의 중심 사상이 동일함을, 그것도 열두제자에 이어 사도바울의 가르침까지 동일선상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도들, 특히 바울은 유대지역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비유대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나라 사상과는 그 강조점과 적용점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다음과 같은 강조점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가) 성령의 중요성

먼저 오순절 때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중요한 지리적 한계를 넘어갈 때마다, 즉 사마리아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행 2장, 8장, 10-11장, 19장). 요한 복음에서 특별하게 강조되었던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 (요 14:16, 26; 15:26; 16:17).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살전 1:5).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성령은 구약에서는 침묵하다가 신약에 이르러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언서들은 메시야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의 흘러넘침에 대해서 풍성히 예고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 32:15이하; 35:6이하; 43:19이하; 겔 11:19; 36:26-27; 37:11이하; 39:29; 율 2:28-29). 이러한 구약적 기대가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사역 속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성령은 가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나)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형성 초기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에 어떻게 이방인이 유입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대인의 영역을 벗어나 땅 끝, 곧 전 세계를 향하여 침투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과제였다. 사도행전은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고넬료의 집안의 성령세례 (행 10장), 안디옥 교회의 탄생 (행 11, 13장), 예루살렘 공의회 (행 15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하나님 나라 선포 (행 28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신학적으로는 사도바울의 초기 편지인 갈라디아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가 “나의 복음”(롬 2:16; 16:25)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자세히 정리한 로마서 (특히 9-11장)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구약으로부터 기다려왔고, 예수님이 그 도래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 뿐 아니라 만민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공활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공활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롬 10:25-26). 초대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역사적의식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들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초기 교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롬 1:18; 엡 2:1)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가 그들의 깊은 관심사였다. 예수를 의지하여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롬 1:16).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클레시아)를 형성한다. 이들은 더 이상 세속,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롬 12:2),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것(골 1:15)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운 삶을 살며 (롬 14:17; 고전 6:9-10; 갈 5:16-21; 엡 5:5),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good works)을 행한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신약 교회의 특징은 이미 임하고, 앞으로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의 중심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이런 종말론적 맥락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졌고, 쉽게 이원론으로 둔갑할 수 있는 물질주의와 현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당연히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운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신약의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동체성, 운동성, 변혁성 등은, 그들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3. 하나님 나라와 복음

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눅 4:43; 16:16) 또는 천국 복음 (마 4:23; 9:35; 24:14[비교, 막 13:10 복음])이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께서 쓰신 표현이다. 예수의 중심사상이 축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막 1:15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함께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예수에게 있어서, 또한 초대 교회에 있어서 불가분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약 전체에서 “주의 날”, “그 날”, 또는 “그 때”에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일은 심판이다 (예를 들어 사 13:9).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이 도래를 이끌고 오실 메시아, 또는 주의 종의 나타날 때, 악인들은 정죄를 받고, 열방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 하였던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사실 대부분이 사람들과 민족에게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심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다 (막 1:15; 마 3:3; 눅 5:32; 13:5).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결단을 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유효한 것이다. 예수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 (마 20:28; 막 10:45),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한 강조 (마 13장),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마지막 밤의 가르침 (마 26:26-30; 막 14:22-26; 눅 22:15-20),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예수의 설교 (요 6장) 등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는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요 3:18-19)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이만,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나) 이방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복음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여 사역하셨던 예수와 그의 청중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회개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감 등이 자연스러운 개념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큰 문화적 장벽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예수가 보여준 메시아상이 그들이 기다리던 모양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회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았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고넬료와 같이 유대교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13:5, 14; 14:1; 17:1; 18:4; 19:8).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대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 (행 17:16-34; 24:10-24; 26:1-32; 28:31) 과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를 비유대교적 또는 헬라적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가르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다양한 신학적 용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되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물론 속죄(propitiation)와 같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온 개념도 사용하였지만, (바울은) 비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다양한 이미지와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법정 이미지에서 의롭게 됨(justification), 노예 시장

의 이미지 구속 (redemption), 로마 시대의 풍습에서 양자됨 (adoption), 일반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화목(reconciliation)등을 사용하여, 비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죄가 많은, 정죄 받은, 죄의 노예로 팔려간, 고아와 같았던, 깨어진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즉, 죄로 인해 곤경에 빠진 보편적인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죄, 의롭게 됨, 구속, 양자됨, 화목 등의 다양한 단어로 묘사되는 구원의 실재를 사도바울은 삼중의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실체로 설명 (엡 2:8; 딤후 3:5)하기도 하는 바울은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고 (딤후 4:18; 롬 10:13; 고전 3:15), 더 나아가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루어나가라'는 현재형의 구원도 표현한다 (고전 1:18; 빌 2:12). 이는 혹자들이 주장하듯 사도 바울이 일관되지 못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기 보다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의 틀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기에 마지막으로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오는 세대를 기다리며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모습은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나타나지만,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의 첫 번째 서신 첫째 장에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1:3, 5, 9).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기초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신약의 저자들 중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이방인 세계 속에서의 그의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하였다.

4.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들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고, 머리이신 한 주인이 계시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한 성령께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이 단어들 자체가 집합적 또는 공동체적이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회심은 개인적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으로 온전하여 진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적 회심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

가)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교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그들은 한 아버지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일체의 차별이 불가함을 사도들은 가르친다 (갈 3:28, 골 3:11, 약 2:1-13). 차별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특징이 있다. 이런 보살핌은 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권징(discipline, 마 18:18-20)도 포

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에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게 돕는 영적 양육과 지도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변증, 전도, 선교 등)이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종의 해방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마 16:18), 예수께서 이끄심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의 통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적 삶에 드러낼 것인가에 마음을 집중하며, 그에 걸맞는 조직인 의사 결정구조를 발전시킨다. 또한 각각의 다른 지체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몸으로서의 다양성과 하나됨을 드러낸다 (롬 12장; 고전 12, 14장).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깨어지고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즉 만물을 회복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엡 1:23; 4:13, 16; 골: 1:15-23), 자신의 공동체 내부에서 이러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속 사회 속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며 (롬 12:17; 13:3; 고후 8:21; 엡 2:10; 4:28; 골 1:10; 살후 2:17; 딤후 3:1; 5:10; 딤후 2:21; 3:17; 딤후 1:16; 2:7, 14; 3:1, 8; 몬 1:14; 히 13:21; 벧전 2:12),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롬 5:3-5; 벧전 2:20-21).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됨을 지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엡 2:22; 벧전 2:4-8), 그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성령이 성도 개개인이 구원 받았음을 확실성을 보여주는 인치심 (롬 15:28; 고후 1:22; 엡 1:13; 4:30)이며, 또한 미래에 받게 될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보증 (고후 1:22; 엡 1:13-14)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단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공동체인 것이다.

나)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앞으로 임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교회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마 5:14-16; 엡 5:8-9; 빌 2:15; 골 1:12; 살전 5:5),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벧전 3:15).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일에 전념하며 열매를 거둔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온전한 회심을 이루는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내 죄를 용서 받았다는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곤경에 처한 개인과 인류가 비록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적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복음을 이해하

게 될 때, 주(Lord)가 먼저이냐, 구세주(Savior)가 먼저냐는 논쟁은 무의미해진다. 예수가 주 이시기에 구세주도 되신다는 메시지(행 2:36)는 참된 회심으로 우리를 이끈다. 물론 이러한 회심은 공동체로의 회심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거절하는 죄의 특징 중의 하나가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인데, 이로부터의 회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공동체 속으로의 귀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심은 교회의 두 번째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하나는 단지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롬 8장; 엡 2:3-5)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 5:48)과,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고전 11:1)이다. 제자도는 다름 아닌 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제자도를 단지 경건생활과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그분을 닮아갈 것인지를 가르친다.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 분리의 영성은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배운 삶의 원리를,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도, 영성 형성, 영적 성숙을 꾀하는 교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회심하고 사람들이 성장하는 터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영적 성숙을 건강하게 이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약 성경을 조금 과장하고 단순화하여 설명한다면, 그 반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교회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문제는 성경에서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고, 초대교회가 드러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자신의 세대에 각각의 적실한 옷을 입도록 노력하지 않은데에서 비롯되었다. 위에서 살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천착하는 세 번째 사명이다.

맺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절실하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총체적이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예수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상실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혼한 상태이다. 한국 교회는 이 불행한 이혼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삶과 사역을 해내야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온전한 회심과 이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제자도가 절실하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종말론적 대망의 삶을 가져온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살아내려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중 하나만 붙잡을 수 없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며, 결혼한 상태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복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점차적으로 교회로서의 면모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심화시켜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¹⁾

김형국 (나들목교회 대표목사, 신학박사)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없는 한국 교회

1.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 이신칭의

나) 복음선포의 참 의미

2. 만인제사장주의와 하나님 나라

가) 만인제사장주의

나)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

3.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가) 정치 조직화된 교회

나) 교회론의 회복

4. 복음의 총체성과 하나님 나라

가)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

나) 교회의 세속 사회에서의 역할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한국교회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없는 한국 교회

종교 개혁 500주년을 몇 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일정량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필자는 지난 글²⁾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분리에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세계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렇듯이,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상 없이도 충분히 전달하고 살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반쪽짜리, 또는 신학적 척추가 없는 복음은 불완전하며 장애를 가진 교회를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학적 반성(theological reflection)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회 개혁은 결국 제도적, 인간 중심적, 외형적 개혁 밖에 이루어낼 수 없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명제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결국 문제

1) 이 글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10월 정기 포럼에서 발제한 것으로, 목회와 신학 독자를 위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 2013년 1월에 복교연에서 발표하고 목회와 신학 2013년 2월에 기고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넘어서서... -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참고하라.

의 근본적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있어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도는 환영받아 마땅하고 또한 격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놓친 상태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온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 교회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교회를 개혁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국 교회의 개혁에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자들이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하고 이데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씌여졌다.

1.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 이신칭의

먼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축은 복음에 있는데, 이 복음이 매우 가볍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매우 단순하나 심오한 성경의 가르침은,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값싼 은혜”의 기독교와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종교개혁 당시, 면죄부등 행위를 강조하던 구교에 대한 대항으로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가 잘못된 극단으로 간 경우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인 이신칭의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 점에 강조점을 두는 교리가 아니다. 자격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 아래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천당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격하되어 이해된다.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이신칭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왕도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이신칭의를 이해할 때,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this age)에 굴복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수고하게 된다. 이것이 곧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이며,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 (good works)이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신칭의의 개념에 대한 약박한 이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세속 사회 속에서 드러내며 살게 된다.

나) 복음선포의 참 의미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래서 회심자의 숫자가 거의 없다시피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복음전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이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는 교인 숫자를 확대하여 교회의 양적 성장을 꾀하고, 기껏해야 영혼을 구원하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도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기독교 외에도 택할 수 있는 정신적 종교적

대안들이 다양해진 현대 문화 속에서 죽은 후에 천당을 간다는 복음 전도는 전도자들의 열정과 자신감과 설득력을 잃게 한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했다는 선포이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깨어진 세상을 방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류에게 선명하게 전달해주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선포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전도는 영혼을 얻는 (winning souls) 사역을 넘어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막 1:15)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선언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인격적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전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꾸짖기까지 해야 한다 (골 1:27).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갖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전도로 인한 부작용, 다원주의로 흐르고 인한 문화적 맥락, 그리고 건전한 조직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회심에 관심을 잃어가는 교회등으로 인해, 복음전도는 점점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전도는 교회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 이벤트를 진행하는 헤드쿼터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 만인제사장주의와 하나님 나라

가) 만인제사장주의

종교 개혁이 가르친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가 만인제사장주의이다. 곧 사제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지 않고, 우리 모든 신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군으로 서로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간다는 가르침이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가르침이다.

만인이, 곧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가르침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실 때부터 꿈꾸셨던 것으로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완성된 것이다 (창 12:1-2; 출 19:6; 뱀전 2:9; 계1:6; 5:10 etc.).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차별이 없다. 바울은 이를 메시아(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한다 (갈 3:28).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종교 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면서 심화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구교로 퇴행, 회귀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의존적이다. 목회자가 있어

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세례식과 성찬식 또는 급기야 예배의 축도권 (때로 저주권이라는 끔직한 권리)이 목회자에게 있다고까지 가르친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 독점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일정량의 봉사를 하며, 헌금으로 교회 사역을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적인 신분과 역할은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당연히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인 성도가 배제되고 목회자 몇 사람에게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한계를 태생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나)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

만인제사장주의가 희석화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평신도와 목회자라는 구분은 평신도와 사제라는 구교적 분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역자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일군으로서 전문성도 있고 그 필요성도 있지만, 사역자가 일반 성도들 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동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평신도로서 사역자를 기껏해야 보조하는 모습으로 전락했다.

한국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어떠한 위계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돈해야 한다. 이는 유교적 위계질서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한 많은 한국교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의 일반적 역할과 사역자들만이 담당해야 할 전문성이 정리되어야 한다. 성경은 실제로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신학교나 어떤 특별한 제도를 통한 사역자의 인증 시스템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오늘날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경은 다만 자비량 또는 타인 또는 공동체의 후원을 받으며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성도들 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말한다 (엡 4:12-13).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의 공동체라고 볼 때, 교회 속에서 성도와 사역자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의 상태를 지속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교회 보다는 일반 종교에서 보이는 사제와 일반 성도의 구분이 개신교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갖는 급진성 역시 약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 하나에게 주신 잠재력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목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은 교회라는 조직 속에 갇혀버리고 결국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3.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가) 정치 조직화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로마가 원시 기독교를 합병한 이후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왜곡되었다. 교회는 종교 기관과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운동들이 구교 속에서도 일어났지만, 구교의 전체적

인 흐름을 주도한 것은 정치 조직화된 기관으로서의 카톨릭 교회였다.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주의 등을 내세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으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정치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아나밥티스트와 형제 교회 전통과 같은 소수파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였고 일정량 귀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는 구교가 가지고 있던 교회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승화 발전시키기 보다는 구교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위에서 살핀 평신도와 사역자를 나누는 구분이 이러한 변혁하지 못한 구교의 대표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가 생겨나고, 그 교파는 교파 나름의 조직을 위해서 교단을 형성하고 그 교단 내에서는 중립적인 의미의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단과 그 교단에 속한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성격보다는 종교 조직으로서 정치적 구조를 갖춘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탄생하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는 여러 조직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로는 세상에 있는 이런 저런 공동체들의 긴밀함과 인격성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뒤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이다.

나) 교회론의 회복과 정립

21세기에 들어서서 개신교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교회론의 정립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 건강한 교회로 갱신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여러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민주적인 교회, 포스트 모던적 교회, 이머징 교회 등이 현대 교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 교회가 추구하였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민과 정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성경적 교회론의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이며,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주인인 교회, 예수가 다스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교회를 민주적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 성령이 늘 다수자의 의견 편에 서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임하였고, 이제 온전히 임할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면, 가장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 공동체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인 교회론을 회복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

회로서 본질을 상실한 세상의 종교 조직 중의 하나인 단체일 뿐이다.

4. 복음의 총체성과 하나님 나라

가)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스러운 삶과 주 중에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 속된 삶을 오가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이원론적 영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영성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면서, 또는 모르고 성도들에게 주입한다. 성도들의 삶은 천당에 갈 때까지 유예된 것이고, 기껏해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정도를 고민하며, 이것조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에게는 요구하기에 힘겨운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종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악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 예수를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단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종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가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저 상징일 뿐이고, 플라톤의 개념처럼 땅의 것과는 별개로 미래에, 또는 천상에서나 완성될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굴복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삶의 요소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아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세상의 권세잡은 자의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못하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고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극복하게 도울 수 있다.

나) 세속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종교적 기관으로 전락해버려서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다. 세속 사회 속에서 다른 집단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접어둔 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대로 세속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고 세워졌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냈던 방법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는 제도권 속의 종교 기관 중 하나로 기능을 발휘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회 속의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거대한 세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형성하고 스스로 게토화되어 세상 속에서의 기본적인 도리와 역할조차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참으로 믿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는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입술과 혀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진보가 있을 것

이다.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장적 기도에 나오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면, 외부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개인적으로도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데,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의 회복”(엡 1:23)이라는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량에 걸맞게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교회는 자선 단체도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러한 사명을 각 지역교회들이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가 오늘날 교회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매일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주거, 교육, 가정,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교회 공동체들이 역량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이어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른 여러 집단과 공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공공의 가치에 비추어서 살피고 그 최소한의 역할과 도리를 행하는 것은 절실하다. 교회의 공공성을 무시하여 반사회적으로 반역사적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아름다움을 세속 속에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한국교회

복음이 하나님나라와 이혼한 상태에서 낳은 자식인 교회는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가 홀부모인 복음만으로 세워진 이 끔찍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먼저 아무나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전하고,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다시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시대 정신에 휘둘리며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교회는 예수께서 주장하신대로 예수 자신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마 16:18).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할지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고, 그리고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낼 것이다. 그들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교회 구조와 문화 자체가 변화된, 정치 조직을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개인과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이들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천착해야 한다. 심각한 고민과 연구, 다양한 실험과 시도, 그리고 건강한 사례의 나눔과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종된 한국교회에, 매우 오래된 (이천년 전에 선포되었으니) 그러나 신선한 (오늘 21세기에 적용되고 있으니) 예수의 메시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 내야한다. 500년 전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혁명적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교회로 생육하라